

# 종교개혁과 오늘날의 한국교회음악

홍정수\*

## 차 례

- I. 시작하면서
  - II. 교회음악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생각
  - III. 루터의 음악관
  - IV. 교회음악의 보존과 혁신
  - V. 끝내면서
- 참고문헌  
독문초록

## I. 시작하면서

개신교는 어느 나라의 경우이든지 간에-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자신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이해한다. 그래서 개신교의 신학적 논의는 주로 이 뿌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회음악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항상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음악적 뿌리가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비록 현재의 교회음악의 모습이 종교개혁 시대의 것과는 사뭇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음악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개혁과 함께 새로운 교회음악의 시대도 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교회음악적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는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음악적 현실을 오늘날 한국의 교회음악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다. 종교개혁을 보는 우리들의 눈이 큰 시간차이를 두고 당시를 바라보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재의 교회음악적 내용이 당시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교회음악에서도 통할 수 있는 교회음악론을 가졌던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루터<sup>1)</sup>

\* 장로회 신학대학 음악과 교수

1) 개신교 쪽에서 보면 루터의 교회음악적 업적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루터와 음악에 관련된 석사학위 논문이 비교적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루터와 음악에 관한 것은 소상하게 잘 알려진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글에서 부족한 부분은 참고문헌에 있는 정기락과 문성모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밖에 없었다. 따라서 루터의 교회음악론은 오늘날도 현실성을 갖는 것이기에 그의 교회음악론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시대의 교회음악론을 다루려고 한다.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음악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답을 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II. 교회음악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생각

루터를 제외한 종교개혁자들은 음악에 대해서 우호적이기보다는 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칼슈타트(Karlstadt, Andreas Bodenstein. c.1480-1541), 파렐(Farel, William. 1485-1565), 불링거(Bullinger, Henry. 1504-1575), 부처(Bucer, Martin. 1491-1551), 쾰링글리(Zwingli, Huldreich. 1484-1531), 칼뱅(Calvin, Jean. 1509-1564) 등이 그들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음악 또는 교회음악에서 교회를 해치는 나쁜 것이 많다고 보았기에 이를 제한 또는 폐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 중 몇 사람은 부패한 로마 카톨릭이 연상된다 하여 모든 기악 연주를 금했다. 1524년 쾰링글리의 영향 하에 있었던 취리히 시에서는 시와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금하는 법령이 포고되었고, 그보다 약간 후에 뮌스터 교회의 오르간이 해체된다. 1925년 취리히 시에서는 찬송가부르기가 그친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오르간 연주와 다성부 교회음악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다. 특히 쾰링글리의 경우는 종교개혁가 중 가장 음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인데, 가장 반음악적인 입장을 취했다.<sup>2)</sup> 그가 그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음악을 자신의 신앙 안으로 품어안지 않고, 저만치에 있는 세속의 틀 안에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모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음악을 활용하였다.

## III. 루터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루터의 신학적 견해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고, 학술적이 아닌 문헌들에서 여기저기 간헐적으로 표출된 발설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이 그의 교회음악관을 아는 일에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2) Oskar Söhngen: "Theologische Grundlagen der Kirchenmusik," *Leiturgia (Handbuch des evangelischen Gottesdienstes Bd. IV)*, Kassel 1961, pp.19-38.

그는 음악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Maximum, immo divinum donum)이며, 큰 힘과 선함(Multitudo et magnitudo virtutis et bonitas)을 가졌다고 말한다.<sup>3)</sup>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론을 따르는 것이다. 또한 음악은 구원을 가져오는 즐거운 것(salutaris et laeta creatura)이기도 하다.<sup>4)</sup>

그는 음악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 가지 단계로, 즉 1)새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 2)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 3)예술적 음악으로 나눈다.<sup>5)</sup> 물론 이 세 가지는 뒤에 말한 것일수록 가치가 더 높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적 내용을 전달하는 새소리 등은 자체로 음악에 속하지만 그 가치가 제한되어 있는 초보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래를 하면서도 말을 실어나를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으로 보아졌다. 그리고 셋째의 가장 높은 단계의 예술음악이다. 이 점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교회에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던 예술음악을 그가 얼마만큼 존중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루터가 개념을 전달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자연의 소리보다 더 높은 정도의 음악이라고 본 것이 개념이 없는 기악을 낮은 정도의 음악으로 해석하게하지는 않았다. 그는 시편 8편의 예를 들어 악기들, 새와 꽃, 젓먹이들까지 메시아를 노래하고 설교한다고 말한다.<sup>6)</sup> 이 부분은 그가 많은 영향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과 사뭇 다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말씀이 없는 '순수 음악적인 것'을 즐기는 것이 죄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음악을 듣고 느끼는 기쁨은 죄없는 것이라고 말한다.<sup>7)</sup> 루터에게는 '순수음악적인 것'이 영적인 것과 닿아 있다. 그는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의 악령을 쫓아낸 것을 기악의 영적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음악을 듣고 기쁨을 느끼는 것은 슬픔의 세력인 마귀와 싸울 힘을 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령이 음악을 도구로 사용한다<sup>8)</sup>고 말하고 있어서 그가 이 부분을 뚜렷히 의식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생각은 어떤 신학자에게서도 볼 수 없는 음악에 대한 긍정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그의 음악론은 음악 지상주의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음악론은 신학적인 면과 분리되어 나타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음악을 위한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가 말한 것은 대개의 경우 신학과의 관련성 안에서 음악을 말하고 있다.

3) Luther: Tischreden Nr. 968.

4) Luther: Bd. 50. p.368.

5) 위와 같은 부분.

6) Luther: Bd. 51, p.11.

7) Luther: Tischreden Nr. 4441.

8) Luther BD. 50 p. 351.

## 4 연세 음악연구

루터의 음악관은 그의 신학적 특징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즉 말씀 강조가 이성적인 것의 강조로 기울어지는 칼뱅이나 쾰빙글리와는 다르게 신앙에 감정적인 측면을 넓게 받아들인 점이 그것이다. “노래는 감정의 소리이다. 말이 이해적으로 파악되지만, 노래하는 목소리에서는 감정적으로 나타난다”<sup>9)</sup>라는 말에서 그러한 루터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루터의 교회음악관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인 성격을 띠는 사항은 아마 음악이 영적 침체를 물리칠 수 있는 것으로 본 사항이다. 그러기에 루터에게는 음악이 영적, 정신적 생활의 중요한 일면이었다. 그가 이렇게 음악을 파악한 것은 음악이 감정과 가까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에게 감정은 다시 이성과 대치되는 것인데, 이성은 언어에 의해 대표된다는 이해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음악 이해는 음악이 감정과 관련된 것을 나쁘게 보는 방향에서가 아니라 좋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은 음악의 감정적 능력을 교회에서도 유용하다고 생각하게 했던 것이다. 이에 비하면 칼뱅의 감정이해는 더 부정적인 성격의 것이었고, 교회음악도 그만큼 더 소극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루터의 교회음악관은 단순히 어떤 ‘생각’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많은 부분 실천에 옮겨졌다. 우선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①예배음악의 정리, ②회중찬송가의 도입, ③학교에서 음악을 필수과목으로 채택, ④ 목회자들에게 노래부르기와 음악 이해를 필수적으로 가르치게 한 것, ⑤교회음악가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등을 열거할 수 있다.

## IV. 교회음악의 보존과 혁신

루터는 전통적 교회음악을 보존한 사람이자 동시에 개혁자라는 두가지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개혁 쪽의 비중이 더 높다. 그러나 단지 개혁자라고 하기에는 옛 음악에 대한 애정이 결코 적지 않았다.

루터는 처음부터 단지 자국어만, 단지 민요만 사용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기에는 그의 언어 이해와 음악 이해가 폭이 넓었다. 그는 셴플이나 조스갱과 같은 사람의 다성음악을 대단히 높이 평가했고<sup>10)</sup>, 스스로도 부족한 상태이지만 다성음악을 쓸

9) Babst: 서문.

10) Luther: Tischreden Nr. 7034.

수 있는 사람이었다<sup>11)</sup>. 그는 라틴어 사용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예술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었다.

따라서 루터의 교회음악적 전통은 일부 카톨릭적 전통을 포함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례도 카톨릭의 틀을 대체적으로 따르는 편이었다. 따라서 그가 교회음악에서 보여주는 것은 점진적인 개혁의 성격이 강했다. 여기에 비하면 칼뱅은 카톨릭 교회와의 뚜렷한 결별을 원했다. 그는 시편가로 가사를 제한함으로써 더 성격적인 음악을 성취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음악에 대한 루터의 넓은 포용력은 당시의 많은 음악적 현상들을 교회에 불러들였다.

루터는 카톨릭의 전통에서 보는 것들 중 복음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예배의식에서 제외시켰고, 나머지는 모두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의 교회(음악) 개혁작업은 ①전통의 좋은 점을 유지시키려는 한 면과 ②전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면으로 된 것을 보게 된다.

①에 속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미사>의 개념, 교회력, 대예배(미사)와 소예배(기도회)의 구분, 전례노래의 낭송방식 등이 카톨릭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가 맨 처음에 구상한 미사(Formula missae, 1523)는 대체적으로 라틴어로 된 것이었다. 이 미사형식은 훈련된 성가대와 라틴어 학교를 가진 큰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무엇보다도 라틴어의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②에 속한 것은 다음과 같은데, 물론 그 중요성이 ①의 것보다 더 크다. 그래서 라틴어 미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을 위한 독일어 미사(Deutsche Messe und ordnung Gottisdiensts, 1526)였다. 그는 여기에서 예배언어로 독일어를 선택한 것인데, 기존의 미사 전통에서 보면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이는 회중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예배에 참여케 하는 조처였는데, 독일어 회중찬송가의 도입도 같은 배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미사의 순서들은 다음과 같이 독일어화 되거나 카톨릭의 것을 고쳐 사용한다:

입당송(Introitus): 여러 시편 절들을 부르는 대신에 하나의 시편만 부르거나 제1교회선법으로 된 하나의 독일어 시편(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Ich will den Herrn loben)

영광송(Gloria): 삭제된다.

콜렉테(Kollekte) 기도: 카톨릭식 낭송음을 사용한다.

사도서신문(Epistel): 활달한 제8선법으로 낭송한다. 이는 카톨릭과 다른 것이다.

11) F. Blume: p.6에는 루터의 4성부 음악 "Non miriar, sed vivam"이 실려 있다.

복음서(Evangelium): 이 부분은 루터 이후 카톨릭보다 더 보강된 부분이다. 이는 말씀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회의 성격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5선법을 사용하는데, 복음기자,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인물들이 각각 서로 다른 음역으로 부른다.

쌍투스(Sanctus): 독일어 쌍투스(“Jesaias dem Propheten das geschah”).

아뉴스 데이(Agnus Dei): 독일어 아뉴스 데이(“Christe du Lamm Gottes”).

루터는 카톨릭의 세쿠엔치아(부속가)와 프로사에 대해 우호적이었음에도 이 두 종류는 새로운 예배에서 사용되지 않고, 다만 특별한 축일에는 사용된다. 그 새신에 들어온 것이 바로 독일 민요식의 회중찬송가이다. 바로 이 회중찬송가가 “차분한 분위기”의 카톨릭 미사 노래와는 다른 “활기”를 예배에 부여한다. 축일에 독일 민요식 노래를 부르는 것은 루터 이전에도 있었던 사항이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정당성이 모자라는 것으로 느꼈었다. 그러나 루터는 이를 축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예배에서 확고한 것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당장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민요식 노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와 그의 음악동역자들은 그러한 노래를 만드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루터는 교회음악의 자국어화에 많은 힘을 쏟은 것은 재언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가 1524년에 쓴 『하늘 예언자들에 반하여』(Wider die himmlischen Propheten)에서 쓴 다음의 구절은 그의 생각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지금 독일어 미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주 독일어 방식으로 되었으면하고 바란다. 라틴어 가사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라틴어의 음과 음표를 갖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이는 장하지도 바르지도 않다. 가사와 음표, 이 둘 모두의 억양, 방식, 움직임이 바른 모국어와 그 소리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원숭이의 흉내에 불과하다.<sup>12)</sup>

이러한 생각은 흔적을 남기는데, 독일 교회음악사 뿐만 아니라 일반음악사에까지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그가 살던 당시에는 라틴어의 전통적 교회음악으로부터 민족어와 민족적 음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따라서 여러 양식의 음악들이 혼재한 상

12) Johannes Wolf: “Luther und die musikalische Liturgie des evangelischen Hauptgottesdienstes,” *Sammelbände der internationalen Musikgesellschaft* III, 1901-1902. p.655에서 재인용.

태였다고 할 수 있다. 루터가 사용한 음악들은 세 가지 정도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① 카톨릭의 예배의식에서 사용하던 노래
- ② 독일의 종교적인 노래
- ③ 독일의 민요

카톨릭에서 사용하던 것은 가사가 독일어로 고쳐지고, 음악도 독일민요식으로 고쳐진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소수의 악보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sup>13)</sup> 그러나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루터의 의도는 가능한한 빨리 자국어의 자국노래 방식의 교회음악을 원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루터의 교회음악은 그 의도의 면에서 보아 단연코 자국의 음악이 중심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루터의 생각은 그의 음악 동역자들에게서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또한 이미 있는 노래를 가사만 바꾸어 새로운 찬송가로 만드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가사붙여진 노래들은 빠르게 친숙한 노래가 될 수 있었던 반면, 한편으로 창조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원래 세속적인 가사를 가졌던 노래의 경우는 세속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중세를 벗어나던 그 시대에는 세속성과 독창성의 면이 19세기의 경우처럼 신랄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세속성의 문제는 교회개혁이라는 신앙운동의 집중성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 자신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찬송가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마르틴 루터의 가장 성공적 노래는 “내 주는 강한 성”(Ein feste Burg ist unser Gott)일 것이다. 이 노래와 함께 루터는 다른 비슷한 노래들을 남기고 있다. 이 노래들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루터의 직접적 작곡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곡을 빌려 사용한 것이었다. 이런 노래는 전례의 틀에 들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예배에서 부를 수 있는 회중찬송가였다. 교회음악의 면에서 보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회중찬송가의 도입이다. 회중찬송가는 예배의식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이었고, 이 새로움을 가능케 했던 것은 새로운 신학이었다. 즉 만인사제설이 회중찬송가의 신학적 배경이 된다. 이 회중찬송가는 음악적으로 보아 전통적인 (또는 정통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밖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항이었을 뿐만

13) 예를 들어 F. Blume pp.23-4에는 라틴어 성가가 독일어화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

아니라, 금기사항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회전례의 저편에 멀리 있었던 교회음악이 생활 속에 있는 음악을 통해서 가까워진 것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먼 것에 있었던 찬양을 가까운 것으로 만들었다. 물론 이 가까움은 신자들의 측면에서 보는 가까움이였다. 회중찬송가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면들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예배에서의 회중의 참여

②민요적 성격으로 인한 폭넓은 층들의 사람을 포용할 수 있었던 점. 여기에는 민족적 성격도 함께 들어 있다.

③자국어의 사용으로 회중의 “이해적” 예배참여가 가능해졌고 민족적인 면도 드러나게 된다.

루터에게서 자국어와 자국 민요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교회내와 교회 밖에서 획기적인 문화개혁을 불러일으켰다. 이 부분에 관한 루터의 업적은 실로 지대한 것이었다.

대다수의 종교개혁가들에게는 음악이 감시와 절제의 대상이었던 반면에 루터에게는 음악이 적극적 장려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음악에 대한 관용은 음악사적으로 대단한 흔적을 남긴다. 즉 독일교회는 음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많은 탁월한 음악가들을 배출하게 된다. 이것이 18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여 교회학교가 음악과목을 폐지하고 교회들이 교회음악가를 임명하는 것을 꺼리게 됨으로써 음악가들이 교회 밖으로 그 활동방향을 바꾸게 된다. 따라서 독일의 교회음악과 음악의 발전의 원인을 찾게 되면 누구나 종교개혁에 부딪치게 되고, 루터의 음악관을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종교개혁 시대는 아직 덜 정리된 교회음악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전개 자체가 완벽한 교회음악을 추구하게 했다가 보다는 당장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가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루터 당시의 음악은 훌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뒤에 오는 훌륭한 음악전통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음악은 어떤 규범적인 틀에 의해 묶인 것이라기보다는 혁신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앙운동을 수반하는 종류의 역동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물론 종교개혁 지도자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태로 나타난 것도 사실이었다. 예를 들어서 루터의 경우는 조금 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방식으로 나타났고, 칼뱅의 경우



는 더 세심하게 준비되고 생각된 방식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개혁교회나 루터교도 이제 젊은 교회가 아니고 나이든 교회이다. 따라서 개혁 이후의 사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음악적으로 루터교는 아직 옛 음악적 유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시대의 찬송가 등이 너무 기준적인 성격이 강하여, 오늘날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회음악이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되지 못한 편이다(최근의 독일 루터교의 찬송가책은 이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으나 그러나 전면적인 방향전환을 하기에는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루터교 음악의 전통이 훌륭한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의 권위에 의해 교회음악적 필요가 발을 붙이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모범적 예들이 지나치게 모델적 성격이 강하여 교회음악의 현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개혁교회는 현재 옛 시편가를 부르는 교회가 거의 없다. 시편가는 만들어질 당시에 개혁교회 내에서만 영향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 루터교 등 다른 교파에도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친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훌륭한 전통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옛 전통을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음악이 발휘하는 힘은 없다. 있다고 하면 이론적인 측면일 것이다. 장로교회는 영미의 18, 19세기의 -주로 감리교 측으로부터 오는- 찬송가와 복음성가에 의해 밀려나고 만 것이다. 이 점을 탄식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일을 되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교회음악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와 종교개혁은 얼마나 가까운가? 한국의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후손임이 분명하지만 몇 세대를 건너뛴 후손이다. 즉 종교개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에서 나온 교회가 아니라 19세기의 교회부흥운동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는 신학적이든지 교회음악적이든지에 관계없이 종교개혁과는 간접적으로 맥이 닿아 있다. 물론 한국의 개신교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의 후손임을 자임하고, 이론적으로도 종교개혁을 많이 논의한다. 그러나 실제의 모습은 종교개혁과의 간격을 확인하게 한다.

교회음악 분야에서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 부른 찬송가는 아주 희귀하게 불리고 있다. 오로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개혁교회 전통14)과 “내 주는 강한 성이요”(루터교 전통)의 두 예가 희미하게 종교개혁의 전통을 기억나게 할뿐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종교개혁에 맞닿아 있는 것은 주로 이론적 방식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 이를 교회음악 분야에서도

14) 곡조만 그렇고, 가사는 종교개혁 시대보다 훨씬 후의 것이다.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교회는 개혁적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였다. 즉 있어온, 잘못된 교회를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이 뿌리 박히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종교개혁과는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교회와 함께 교회음악도 선교적 성격이 강했다. 로마라는 통치권력과 결합된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원했던 종교개혁은 자국의 문화 전통을 긍정하는 바탕 위에서 교회음악을 설정했다. 여기에 비해 한국의 교회는 교회 자체의 도입을 원했었다. 또한 교회음악도 함께 도입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아 교회를 전래해준 문화의 영향을 즐겁게 받았다고 말하는 편이 옳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선교사들 쪽에 못지 않게 한국인들 쪽에서도 자국의 문화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한국민요식의 찬송가가 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것도 바로 그런 예 중의 하나이다. 종교개혁이 로마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인해 민요와 같은 자국의 문화적 전통을 대립적 교회음악으로 내세울 수 있었다. 반면에, 한국의 기독교는 비기독교적인 자국의 문화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적인 견해를 유지해 왔고, 민요적인 찬송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크게 주목될 수 없었다.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 교회와 한국의 교회가 보여주는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매우 확연하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꼭 민요적인 방식으로 교회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오늘날까지도 크게 대두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회중과 가까운 음악으로서는 민요라는 비교적 단순한 사항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대중음악>이라는 민요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산된 음악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민요적인 방식으로 한국의 교회음악을 만들자는 주장이 있지만, 민요로서 대중음악의 영향력을 누를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실제의 모습도 민요적 교회음악 보다는 대중음악적 교회음악이 더 강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개혁의 교회음악적 전통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옛 음악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개혁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말일 것이다. 교회음악은 자체로 가치 있는 음악도 활용되지마는 그보다는 신앙적 개혁운동을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본정신과 상통할 것이다. 음악적으로 종교개혁의 기본정신을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살리는 길은 권위적인 어떤 종류의 음악에 매달려 실제로 생활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음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이 타당하다. 즉 사람들 가운데 살아 숨쉬는 음악을 장려하는 일이다. 때때로 그 음악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살아있는 음악은 옛 시대의 그것보다는 더 다양하다. 오늘날 일반적 한국인들은 민요를 매우 어려워한다. 그들에게 민요는 다시 배워야할 음악이다. 따라서 민요의 원형적 모습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아닌, 조금 변형된 종류의 것이라야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찬양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정신보다는 권위를 새롭게 형성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교회음악에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을 도태시키려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자주 눈에 띈다. 즉 교회가 정리되고 고착화되는 성격을 보이는 것이다. 아마 그러는 편이 부작용이 없으리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생각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누구에게나 신앙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이 주는 음악적 교훈은 우선 어떤 방식으로든지 찬양을 하게 하는 것이다. 찬양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정해주는 찬양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로 찬양을 하게 하는 일이다.

## V. 끝내면서

루터의 교회음악관은 음악의 광범위한 사용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음악에 대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음악의 흐름을 크게 바꾼 개혁을 초래했다. 그리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듯, 멀리 있는 교회음악을 누구나 손쉽게 부를 수 있는 음악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생각은 카톨릭에 의해 1965년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비로서 인준될 수 있는 생각이었다. 물론 카톨릭 교회의 교회음악적 전환은 루터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를 통해 루터의 생각이 얼마나 앞선 것이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한국개신교의 교회음악은 지금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르는 노래에서 세대간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단지 옛것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는 주장이고, 또 어느 면으로 보아 없어서는 안될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이 찬양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루터적 교회음악관에 따르면 그러한 역제는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 교회음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새로운 교회음악의 흐름 중 가장 큰 것 두 가지를 들면, 하나는 대중음악적 성가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음악적 성가들이다. 루터에 비추어 보면 이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참 고 문 헌

1. 문성모, “마틴 루터의 예배음악에 관한 신학적 이해,” 「민족음악과 예배」, 도서출판 한들, 1995, 358-389.
2. 정기락, “마르틴 루터의 민족교회음악,” 「음악과 민족」, 1993, 제6호, 242-262.
3. Adler, Guido., *Handbuch der Musikgeschichte*, Tutzing 1961.
4. Babst, Valentin., *Das Babstsche Gesangbuch*, Leipzig 1545. 영인본(Kassel 1966).
5. Blume, Friedrich., *Geschichte der evangelischen Kirchenmusik*, Kassel, 1965.
6. Lutehr, Martin.,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1833-1954.
7. Söhngen, Oskar., “Theologische Grundlagen der Kirchenmusik,” *Leiturgia* (*Handbuch des evangelischen Gottesdienstes* Bd. IV), Kassel 1961.
8. Wolf, Johannes., “Luther und die musikalische Liturgie des evangelischen Hauptgottesdienstes,” *Sammelbände der internationalen Musikgesellschaft* III, 1901-1902. pp.647-670.

## ABSTRAKT

### Reformation und die heutige Kirchenmusik Koreas

Hong, Jung-soo

Martin Luther brachte ein neues Denken in die Kirchenmusikgeschichte. Er führte volkstümliche Lieder in eigener Sprache in die Kirche hinein und ließ die polyphne Chormusik gelten, die von anderen Reformatoren verboten wurde. Mit seinem Denken begann eine neue Kirchenmusikgeschichte und damit eine neue deutsche Musikgeschichte. Seine musikalische Ansicht kann sich bis heute als eine einzig brauchbare unter den Musikanschauungen der Reformatoren behaupten.

Luther wollte die Kirchenmusik dem Volk nahebringen, damit man ohne Schwierigkeit singend am Gottesdienst teilnehmen konnte. Diese offene Haltung zur Musik und zum Volk ist nicht immer einfach in der Kirche, in der immer eine Tendenz da ist, die strengen Regeln über die Musik die Oberhand zu gewinnen.

Was kann das Denken Luthers in der heutigen koreanischen Kirchenmusik bewirken? Das dem lutherschen Beispiel Folgen heißt, das Volkslied zu betonen. Aber das traditionelle Volkslied liegt dem koreanischen Volk fern, so muß man es zunächst wieder erlernen. Das koreanische Kirchenvolk singt inzwischen eine neue Gattung der Kirchenmusik immer häufiger. Das sind Kirchenlieder im populären Stil. Die an der traditionellen Kirchenmusik angewöhnten Leute machen Vorwürfe, daß sie zu weltlich seien. Die Kritik ist in einigen Gesichtspunkten unvermeidlich, aber sie hilft Nichts. Besonders die jungen Leute stehen im Begriff, eine eigene Sprache zu schaffen, auch in der Kirchenmusik. In diesem heitigen koreanischen Fall kann die Offenheit Luthers sinnvoll sein.